



04 공감 동화

어린왕자

12 스포츠라이트

야구와 헌신

30 함께하는 풍경

HR Renovation 순항
직영 염리동주유소 개소

38 팝업 정보창

함께 극복해요! 코로나19

통권 제461호 발행일 2020년 4월 7일 발행처 에쓰-오일 주식회사 홍보팀
주소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192 홈페이지 www.s-oil.com E-Mail sabo@s-oil.com
제작 ㈜디자인소호 02-514-5164 · ㈜성환인쇄 02-2273-0583
안내 일부 기사*의 게재를 잠정 보류합니다.
* <달리는 희망 주유소> <취미 연관 검색어> <가족 추억 공작소>

MADE 함께 만드는 가치

04

공감동화

[나눔] 어린왕자

06

고전 속 핵심가치

[협력] 동주공제
난관 이기는 초월적 협력

08

표창자 인터뷰

[Digital Transformation Leader]
박종현 사우(인력개발팀)

IN 우리 안의 성장판

10

습관의 기적

소리 내어 읽으세요
[낭독] 습관

12

스포츠라이트

흰색은 검은색으로 빛난다
[야구와 헌신]

14

읽고 듣는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아, 꿈속에서 살고 싶어라'

16

언제나 건강

방심할 틈 없는 시한폭탄
[뇌혈관 질환]

18

이달의 활력평가

4월 탐구영역 [선거]

20

터벅터벅 소도시

[탱고 본고장]
아르헨티나 라 보카

24

정원의 품격

빌딩 숲 너머 무릉도원
[서울 종로 부암동 석파정]





표지 속 동화

어린왕자

진정한 관계에는 진실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인정을 베풀고 의리를 실천하며 서로에게 기꺼이 가진 것을 내어줍니다. 어린왕자가 여우와 장미꽃을 통해 깨달은 길들임과 책임감의 무게는 이해관계로 얽힌 삭막한 이 시대에 나눔 가치를 일깨웁니다.

*관련기사 4쪽

S-OIL 앞서나가는 에너지

28

두런두런 이야기방

사우 가족 편지
도서 <행복을 풀다> 독후감

30

함께하는 풍경

HR Renovation 순항
직영 엄리동주유소 개소

33

단신

제45기 정기 주주총회

34

주요 경영활동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36

햇살나눔

코로나19 극복 기원
릴레이 연주 캠페인

38

팝업 정보창

함께 극복해요! 코로나19

40

임직원 동정

42

독자마당

08



14



28



33



24





공감 동화

순수한 마음속 동화를 다시 꺼내드립니다. 익숙한 명작동화로부터 핵심가치에 이르는 지혜를 얻습니다.

제4화 [나눔]

진실한 마음 나눔

어린왕자

글. 진형준(<세계문학컬렉션> 저자, 前 한국문학번역원장)

관계보다 연결로 세상을 만나는 시대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대표적이다.
수많은 사람과 연결되지만 시간과 정성을
들여 서로를 길들이는 데 인색하다.
책임감에도 둔해져 돌아서면 그만이다.
관심과 정성과 실행력이 동반되는 길들임,
즉 관계 맺음은 끈끈한 연대감을 낳는다.
외로움의 별에 사는 현대인에게
어린왕자가 던지는 나눔(Sharing)
메시지로부터 묵직한 깨달음을 얻는다.

양투안 마리 장 밥티스트 로제 드 생텍쥐페리(Antoine Marie Jean-Baptiste Roger de Saint-Exupéry)의 <어린왕자>는 전 세계에서 1억 부 이상 출판된 명작이다. 제2차 세계대전 프랑스 공군으로 참전한 작가는 비행사 경험을 토대로 여러 저서를 펴냈다. 특히 우편 항공로 개척을 위한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어린왕자>의 창작 동기를 얻는다.

80년 가까이 300개 이상 언어로 꾸준히 출판되면서 어린왕자의 상징인 휘날리는 머플러와 굽슬굽슬한 머리카락은 변함이 없다. 작가가 직접 그린 삽화다.

1942년 뉴욕 어느 식당에서 작가가 냅킨에 그린 그림을 본 출판업자의 권유로 어린왕자는 생명을 얻었다.

<어린왕자>를 구성하는 총 27장의 시작은 비행사 이야기다. 그는 비행기 결함 탓에 사막에 추락하면서 어린왕자를 만난다. 금발머리를 하고서 양을 그려 달라 청하는 어린왕자는 지구에 오기까지 여섯 개의 별을 거쳤다. 혼자 사는 왕, 허영심에 빠진 남자, 술꾼, 사업가, 가로등지기 등을 만났다. 그중 여우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비행사에게 전한다.



최고 Excellence

열정 Passion

정도 Integrity

협력 Collaboration

나눔 Sharing

우리는 책임감 있는 모범 기업시민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공동체들과 우리의 성공을 나눕니다.

주고받는 마음 길들임

“네가 나를 길들이고 내가 너를 길들이면 우린 서로 떨어질 수 없게 돼.
넌 나에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사람이 되고, 난 너에게
둘도 없는 친구가 될 테니까.”
어린왕자는 길들임을 통해 여우, 장미와 추억을 공유하고 마음을 풀어놓는다.
이들 서로는 담 높은 경계 너머 일방적으로 돌봐야 하는 관계가 아니다.
길들임을 통해 어린왕자와 여우, 장미는 저마다 각별한 존재 가치를 갖는다.
마음 깊숙이 교감하며 관계 맺음을 양분 삼아 나눔의 선한 꽃을 피워낸다.

“너는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
언제까지나
책임을 져야 해.”

<어린왕자>* 중에서

* <어린왕자>(정장진 옮김·문예출판사·2019)는
첫 프랑스어 초판본을 낸 프랑스 갈리마르
출판사의 출간 70주년 기념 에디션(2013)
번역본이다.



나눔의 근본 책임감

나눔은 단번의 행위만으로 가치를
실현하기 어렵다. 지속할 때 빛이 난다.
그 동력은 책임감이다. 길들이고 관계
맺은 가족, 친구, 동료, 이웃, 사회가
서로를 위해 변함없이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다. <어린왕자>에도 책임감이
언급된다. ‘친구를 계속 사랑하고, 곁에
있어주며, 응원해준다’는 말로 책임감을
정의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속한
사회를 사랑하며 다양한 역할로 책임을
수행한다. 지역사회 또한 기업시민을
격려하면서 옳은 길을 걷도록 관심과
지지를 보낸다.
일상 속 만남이 더없이 귀하고 그리울
요즘 평범한 이들의 선행이 회자된다.
그 미담이 더없이 기쁜 이유는 나눔의
크기 때문이 아니다. 책임 있게 함께해
줄 이들이 있다는 믿음에서 오는
안도감이다. 나눔이 선물하는 가장 큰
희망이다. 🌱



同舟共濟

핵심가치
[협력] 편난관 이기는
초월적 협력

글: 박수밀(고전문학자)

— 같은 배를 탄 운명공동체

사람은 저마다 처지가 다르고 이해관계도 달라 하루아침에 친구사이가 원수지간이 되기도 한다. 하물며 국가 간의 협력은 더욱 어렵다. “하나의 산은 두 마리 호랑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강한 세력을 가진 둘은 공존하기 쉽지 않다.

춘추전국시대 오나라와 월나라는 양속 관계로 유명하다. 어느 날 두 나라 사람들이 국경 부근에서 같은 배를 타게 됐다. 원수가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셈이다. 서로 눈길도 마주치지 않고 배에 올랐다. 배가 강 한복판에 이르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세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더니 거센 파도가 배에 들이닥쳤다. 순식간에 배 안은 아수라장이 됐다. 사공은 돛을 펼치려 안간힘을 썼으나 세찬 풍랑을 이길 수가 없었다. 배가 곧 뒤집히려는 일촉즉발 상황에서 오나라와 월나라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돛대에 달려들어 돛을 펼쳤다. 덕분에 흔들리던 배는 다시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손자> ‘구지편(九地編)’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은 서로 미워했지만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널 때 풍랑을 만나자 서로 좌우의 손과 같이 도왔다.”

여기에서 동주공제(同舟共濟)란 말이 나왔다.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넌다는 뜻이다. 두 나라는 양속 관계였지만 위기가 닥치자 함께 단결해 이겨냈다.

동주공제

한마음 한뜻으로 난관을 이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同 舟 共 濟

同

같은 동

1. 같다 2. 함께

舟

배 주

1. 배 2. 그릇

共

한가지 공

1. 한 가지 2. 같이

濟

건널 제

1. 건넌다 2. 돕다

— 한마음 한뜻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수많은 사람이 생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 가운데 서로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며 희망을 주고받는 기사들이 눈에 띈다. 우리 민족은 위기가 닥치면 함께 고통을 나누는 모범적 행동력을 보였다. 재난 상황에서도 일사불란하게 힘을 보태고 지혜를 모았다.

어려울수록 공명지조(共命之鳥)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공명조는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머리가 둘 달린 상상의 새다. 한 머리는 낮에 일어나고 다른 머리는 밤에 일어난다. 매일 몸에 좋은 열매를 챙겨 먹던 한 머리를 질투한 다른 머리가 어느 날 독이 든 열매를 몰래 먹는 바람에 두 머리는 모두 죽고 말았다. 타인의 불행은 결국 나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전 세계는 같은 배를 타고 풍랑을 건너고 있다. 원수 사이도 위기가 닥치면 하나로 합쳐 풍랑을 이겨냈듯, 불필요한 다툼을 멈추고 머리를 맞대 거센 비바람을 힘껏 헤쳐가야 할 때다. 🌊



핵심가치 [협력] 되새기며
필사로 사자성어를 익혀보세요!

同舟共濟

同舟共濟

同舟共濟

同舟共濟

同舟共濟

同舟共濟



표창자 인터뷰

업무현장에서 다양한 성과를 일궈낸 사례로 우리 안의 핵심가치를 공유합니다.

미래 여는 배움의 길

[Digital Transformation Leader] 부문 표창자
박종현 사우(인력개발팀)

글로벌 교육 트렌드 사내교육 접목

리더는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 남다른 경쟁력을 키운다. 스스로 학습 동기를 찾아 공부하며 남보다 앞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춰간다. 'Digital Transformation Leader' 부문 CEO 표창을 받은 박종현 사우는 선진적 디지털 교육 방식을 다양하게 활용하며 사내교육 혁신을 이끌 어간다.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은 디지털 교육 방식의 일종입니다. 집합 교육 전에 온라인으로 이론을 학습하고 현장에서는 토론과 실습

등을 중심으로 심화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 효과가 높아 글로벌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지만 온·오프라인 교육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구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에서는 운영 사례가 희소한 편입니다.”

박 사우는 플립러닝을 선제적으로 사내교육에 접목했다.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과정 데이터베이스를 선별하고 강사와 긴밀히 협의해 오프라인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현장 교육에서 이론은 복습 수준으로 최소화하고 학습 흥미를 유발하는 활동·토론·실습으로 구성했다.

가령 시간 관리 리더십 교육이라면, 동시다발적으로 업무·이메일 등을 받았다는 가정 하에 자신의 업무 계획을 세워보는 시뮬레이션 과제를 풀어보도록 했다.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경험하고 학습하는 것이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가능할까, 그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교육 참석 전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는 것은 분명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기우였습니다. 오히려 기존 교육 방식보다 플립러닝이 집중력과 몰입도를 상승시켰습니다. 큰 보상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플립러닝으로 효과 UP
스마트러닝으로 접근성 UP

플립러닝과 함께 디지털 학습을 선도하는 스마트러닝(Smart Learning)은 교육 접근성을 높여 상시 학습 조직문화를 정착하는 데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 자기계발에 관심은 있으나 교육에 긴 시간을 내기 어렵고, 시간 여력이 부족한 직원들을 위해 고안됐다. 특히 출퇴근 시간 등에 학습이 가능하도록 모바일에 최적화된 스마트러닝 시스템을 구축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스마트러닝은 기본적으로 외부 온라인 교육기관을 통해 데이터를 가져오되, 우리 회사에 맞는 콘텐츠를 선별해서 제공합니다. 우리 기준에 맞는 리더십 역량을 정리하거나 필요에 따라 콘텐츠를 찾아 최신 자료를 지원합니다. 스마트러닝 교육은 대부분 긴 내용을 잘게 분절한 마이크로러닝 콘텐츠로 이뤄져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학습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들 새로운 디지털 교육 방식은 교육비 절감이라는 경제적 효과와 함께 2017년 대비 69% 학습률 상승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교육 만족도 제고를 통해 상시 학습 조직문화가 점차 구축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크다.

미래 역량 갖추는
학습동기 강화

우리회사는 교육 효과와 접근성을 높이는 두 가지 교육 방식 외에도 인사데이터를 유기적으로 활용한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인사평가 중 역량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족한 역량에 대해 스마트러닝과 독서통신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박종현 사우는 한 발 더 나아가 평가 데이터 외에 사우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족함과 필요한 교육을 선제적으로 찾아 콘텐츠를 추천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학습 동기 유발만큼 역량을 강화하는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개별 학습을 넘어 전사적인 커리어 개발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스스로 질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성장할지, 목표를 어느 지점에 둘 것인지 자문해보면 학습에 자연스럽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런 작은 차이가 분명 미래를 바꿀 것이라 믿습니다.” 🌱



어떻게 성장할지
목표를 어느 지점에
둘 것인지
스스로 질문합니다





소리 내어 읽으세요

[낭독] 습관

명사들이 책을 읽어주는 낭독 콘텐츠가 인기다.
잠시 침체된 오디오북 시장도 활력을 얻었다. 낭독은
스스로를 독자(讀者)이자 화자(話者)이며 동시에
청자(聽者)로 만들어 입체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소리의 공명이 글자와 만나면 글맛이 더해질 뿐 아니라
가슴속부터 차오르는 만족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함께하다

목 필균

약속 없이 태어나서 산다는 것이
첫 울음이 첫 숨소리인 것처럼
살기 위해 먹는 것처럼
숙명으로 끌어안은 생명인 것을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고
귀인도 만나고
담금질하는 사람도 만나고

평생 할 일을 설계하여 이를 때까지
사랑과 이별로 희비의 근육을 키우며
안간힘으로 버틴 청춘도 기울어
피할 수 없이 늙어가는 육신인 것을

마음은 홀로 갈 수 있지만
육신은 홀로 가기 버거운 것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잡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사라져 보면 안다
만날 수 없으면 안다
두 다리 성하여, 두 눈이 성하여
단단해진 마음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낙엽 지듯 떨어져 나가보면
간절히 간절히 간절히
가슴에 젖어든다는 것을

◀ 올봄 본사 사옥 글판에 게시된 목필균 시인의 시
<함께하다>의 전문입니다.
낭독을 통해 시의 깊은 울림을 느껴보세요.

1 낭독의 힘

낭독은 입을 통해 몸으로 전해지는 일련의 활동이다. 뇌과학
연구원 최상한 박사는 전두엽 기능 평가 실험을 통해 낭독이
전두엽을 활성화시켜 기억력을 20% 향상시키는 등 뇌 운동
을 평소보다 활발하게 한다고 발표했다. 닌텐도 두뇌 트레이
닝 게임을 감수한 일본 카외시마 류타 교수 또한 MRI(자기공
명영상) 촬영을 통해 낭독할 때는 혈액량이 많아지고 뇌 신경
세포의 70% 이상이 반응함을 발견했다.

학습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도 크다. 낭독은 전 연령대가 다양
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학습법이다. 특히 외국어 학습에 있어 상
용어구와 문법 암기, 발음 개선은 물론 독해력·회화력·문장 구
사력을 키우는 데 효과가 있다.

1월
1천 원 저축

2월
메모

3월
결정

4월
낭독

5월
칭찬

6월
자투리 학습

2 하루 10분 기초 훈련

매일 다섯 가지 기초 훈련을 통해 기본기를 튼튼히 다지면 발표 자세를 교정하고 읽는 즐거움도 배가시킬 수 있다.

① 마사지 & 스트레칭

가벼운 목 스트레칭과 후두 마사지로 긴장된 목과 성대 주변 근육을 이완시키면 발성에 도움이 된다.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스트레칭한다는 생각으로 'ㄷ ㄱ ㅣ ㅏ ㅑ'를 20초간 발성한다. 5회 반복한다.

② 복식 호흡

일반 흉식 호흡보다 더 많은 양의 공기를 폐 깊숙이 채워 울림 있는 소리를 만든다. 배에 손을 얹고 숨을 크게 들이마실 때 나오는지, 내쉴 때 들어가는지 확인한다.

③ 발음

낭독 속도가 느려도 괜찮다. 또박또박 정확한 읽기는 뇌에 자극 전달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④ 녹음

낭독 훈련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면 녹음은 필수다. 미처 몰랐던 목소리 톤, 억양, 발음 등을 상세하게 알 수 있다.

3 낭독 훈련 가이드

낭독은 아이부터 성인까지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소통 방법이다. 화자와 청자로서 함께 즐기며 적용해 볼만한 훈련법이 있다. * 참고 : <나에게, 낭독> 서혜정·송정희 지음, 2018

① 누워서 낭독

누우면 굳었던 몸이 이완되고 마음도 안정된다. 서 있을 때보다 호흡이 깊어져 복식호흡하기 수월해진다. 이 상태에서 낭독하면 소리가 더 멀리 뻗어나가고 울림도 크게 느껴진다. 평소 앉거나 서서 낭독할 때 누워서 소리 낼 때의 느낌과 발성을 기준 삼으면 도움이 된다.

② 일어서서 낭독

낭독의 기본 자세다. 곧은 자세는 호흡과 발성을 좋게 한다. 어깨를 펴고 척추를 곧게 세워 소리를 멀리 보내는 느낌으로 발성한다.

③ 걸으며 낭독

낭독이 어색한 초보자를 위한 훈련법이다. 걷다 보면 긴장감이 해소되고 몸이 리듬감 있게 움직여 발성이 한결 자연스러워진다. 걷는 속도와 몸의 움직임에 따라 낭독 속도를 조절하면 훈련에 효과적이다. 🌟





흰색은 검은색으로 빛난다

야구와 헌신

글. 공규택(<경기장을 뛰쳐나온 인문학> 저자)

경기가 끝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는 단연 경기력 뛰어난 에이스 선수들이다. 그 뒤에는 결정적 골로 이어지도록 도움을 주거나, 때론 희생으로 팀의 기세를 올리는 선수들이 있다. '희생'이란 플레이 방식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야구 일화를 통해 하나의 팀이 갖춰야 할 조직과 구성원의 자세를 되새긴다.

그때 그 경기!

온몸 던져 획득한 값진 우승

1982년 세계야구선수권대회, 숙적이자 라이벌인 한국과 일본이 세계 강호들을 물리치고 결승전에서 맞붙었다. 우리나라가 0대2로 뒤쳐진 상황에서 8회말이 시작됐다. 명장면은 2번 타자 김재박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면서 펼쳐졌다. 일본 투수가 공을 던지려는 순간, 김재박 선수는 재빠르게 희생번트(투수가 던진 공이 가까운 거리에 떨어지도록 배트를 공에 가볍게 대듯 맞추는 일) 자세를 취했다. 일본 포수가 알아차리고 오른쪽으로 한두 발 몸을 움직이던 순간, 김재박 선수는 투수가 멀찌감치 던진 공을 향해 개구리처럼 필사적으로 몸을 날렸다. 지금도 회자되는 개구리 번트의 탄생 순간이다. 배트에 비껴 맞은 타구가 3루 쪽 파울 라인을 타고 절묘하게 굴러갔다. 3루에 있던 주자는 홈을 향해 질주했고 그 사이 김재박 선수도 1루에 안착했다. 승리 희망을 본 3만여 관중은 열광했다. 김재박 선수의 번트를 기폭제로 우리나라는 5대2로 우승을 차지하는 위업을 달성했다.



#Baseball



스포츠 잡학사전

야구 속 공식 용어 '희생'

야구는 '희생번트', '희생플라이', '희생타' 등 희생(Sacrifice)이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유일한 스포츠다. 축구와 농구 종목에도 동료가 골을 넣도록 공을 넘겨주는, 이른바 도움(Assist)이 있지만 야구처럼 희생을 요구하거나 행할 수 없다.

희생을 통해 선수 자신은 아웃이 될지언정 팀이 필요로 하는 점수를 얻거나 선행주자가 진루를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희생타에 성공한 선수가 대기석에 들어오면 동료들이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선수를 다독이며 격려한다.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희생타를 성공한 선수에게 "고맙다"고 말한다.

야구에서는 팀을 위해 희생하는 행위를 보상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타율을 계산할 때 희생타를 제외해 타자가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모바일기로
QR코드를 찍으면
해당 스포츠 관련 장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직 속 플레이

헌신과 팀플레이

희생과 유사한 개념으로 헌신이 있다. 희생이 자신의 치명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조직을 살려내는 행위라면, 헌신은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구성원의 자세다. 희생이 헌신보다 강도는 더 높지만 둘 모두 대의를 위해 개인의 손실을 마다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다.

자의든 타의든, 혹은 희생이든 헌신이든 조직의 이익을 우선 가치로 선택한 구성원에게는 합당한 보상과 격려가 수반된다.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희생 또는 헌신하고 있다고 때때로 오인하는 것 아닌지 스스로 엄중히 기준을 세워 판단해볼 만하다.

성과 창출 끝에 보람만 나누는 팀이 이상적 모델은 아니다. 위기 속에 책임을 함께 지고 손실의 고통에 공감하며 동료를 향한 격려로 극복해내는 것이 하나의 팀이며, 진정한 팀플레이다. 🌈





아, 꿈속에서 살고 싶어라

모바일기기로 QR코드를 찍으면
'아, 꿈속에서 살고 싶어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글. 정은주(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줄리엣

나는 살고파라. 나를 취하게 만든 이 꿈속에서.
 오늘도 달콤한 불길이어.
 당신을 나의 영혼 안에 간직하네.
 마치 하나의 보석처럼!
 이 도취된 젊음은 단지, 하루만 지속되네.
 그리고 때가 오리라.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때가.
 마음을 사랑에 양보하네. 행복은 달아나네. 돌아오지 않고.
 나는 살고파라. 우울한 겨울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놔두오. 내가 잠자도록.
 한 송이 장미 향기를 맡네. 꽃잎을 따기 전에.
 아, 달콤한 불길이어.
 머물러라. 나의 영혼 안에.
 마치 어느 달콤한 보석처럼
 오래 오래!

#Juliette

Je veux vivre Dans ce rêve qui m'enivre Ce jour encore,
 Douce flamme Je te garde dans mon âme Comme un trésor!
 Je veux vivre, etc. Cette ivresse de jeunesse
 Ne dure, hélas! qu'un jour! Puis vient l'heure
 Où l'on pleure.
 Loin de l'hiver morose
 Laisse-moi, laisse moi sommeiller
 Et respirer la rose,
 Avant de l'effeuiller.
 Ah! Douce flamme!
 Reste dans mon âme
 Comme un doux trésor
 Longtemps encore.





샤를 프랑수아 구노(1818~1893)
프랑스 작곡가

파리 음악원에 재학 중이던 1839년 프랑스 정부가 주최하는 콩쿠르 일종인 로마 대상에서 칸타타 <페르디난드>로 1위를 차지했다. 부상으로 주어진 이탈리아 유학 기간 중 종교음악에 심취한 결과 걸작 <아베마리아>를 탄생시켰다. 1851년에 첫 번째 오페라 <사포>를 발표했지만 흥행에 실패하고, 4년 뒤 괴테의 극본을 바탕으로 한 오페라 <파우스트>로 대성공을 거둔다. <로미오와 줄리엣>까지 연달아 흥행하면서 구노는 프랑스 오페라의 대부로 우뚝 섰다.

<로미오와 줄리엣> 작품 속으로

로미오와 줄리엣은 가면무도회에서 처음 만나 운명적 사랑에 빠진다. 서로의 가문이 오랜 숙적관계임을 알고 깊은 슬픔에 잠긴 두 사람은 결국 비밀결혼식을 올린다. 줄리엣은 정략결혼을 피하기 위해 로랑신부가 건넨 약을 마시고 결혼식에서 쓰러진다. 그녀가 죽은 것으로 오해한 로미오는 줄리엣 옆에서 준비해온 독약을 마신다. 그때 줄리엣이 깨어나 로미오와 재회하지만 그의 죽음을 막을 수 없음에 통곡하며 독약을 마시고 함께 죽음을 맞이한다.

아는 만큼 들리는 오페라 상식!

브라부라 아리아(*Bravura aria*)

가수의 음역이나 창법의 경쾌함을 과시해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 작곡된 노래다. 로시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나는 이 거리의 만능 일꾼', 베르디의 <리골레토> 중 '여자의 마음' 등이 돋보이는 브라부라 아리아다.

아리에타(*Arietta*)

짧고 간단한 아리아를 뜻한다. 완벽한 아리아처럼 화려하거나 복잡하지 않다. 푸치니의 <라 보엠> 중 '낮은 외투여' 등이 아름다운 아리에타 중 하나다.



비극적 로맨스의 찬란한 슬픔

#1

아, 꿈속에서 살고 싶어라

#2

웅장한 음악과 풍부한 선율, 극적인 전개와 아름다운 멜로디가 압도적인 작품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원작으로 하는 구노의 오페라는 1867년 파리의 테아트르 리리크에서 초연됐다. 공연은 셰익스피어의 나라 영국뿐 아니라 미국과 여러 유럽 도시에서 공연되며 큰 인기를 누렸다. 구노의 오페라는 내용과 구성에서 원작과 큰 차이를 보인다. 원작에는 줄리엣의 정략결혼 장면이 등장하지 않지만 구노는 그 둘의 결혼식을 넣었다. 자신의 음악적 특징인 극적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다. 가장 돋보이는 각색은 엔딩이다. 원작에서는 로미오가 죽은 뒤 줄리엣이 깨어나지만 구노는 마지막 짧은 순간일지라도 그 둘을 만나게 한다. 남편 주인공이 함께 피날레를 장식해야 하는 오페라의 규칙에 따른 것이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총 5막 8장(약 3시간)으로 구성된다. '아, 꿈속에서 살고 싶어라', '고귀한 천사여', '사랑이여, 제게 용기를 주세요' 등 아리아가 유명하다. '아, 꿈속에서 살고 싶어라'는 1막의 화려한 무도회 장면에서 흐르는 왈츠풍 아리아다. 줄리엣의 아버지는 자신이 주최한 무도회에서 예비 사위로 점찍은 파리스 백작에게 다가간다. 줄리엣의 유모도 줄리엣에게 결혼을 망설이지 말라고 조언한다. 이 상황에서 줄리엣이 부르는 마음 속 노래다. '줄리엣의 왈츠'로도 불리는 이 곡에서 그녀는 정략결혼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드러낸다. 유모의 말을 흘려들으며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듯 아리아가 흐른다. 줄리엣은 소프라노, 로미오는 테너가 맡는다. 🌻



언제나 건강

모든 가능성의 기본은 건강입니다. 12대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예방·관리·개선에 참고할 정보를 집약합니다.

방심할 틈 없는 시한 폭탄

뇌혈관 질환

뇌는 우리 몸의 2%에 불과하지만 전체 혈액 공급량의 15%, 에너지의 20%를 소비한다. 뇌세포 손상은 의식변화와 반신마비 등 신체장애를 남길 뿐 아니라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한다. 사전 예방은 물론 응급치료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

1월
심장
질환

2월
관절염

3월
당뇨병

4월
뇌혈관
질환

5월
악성
신생물

6월
간
질환

7월
정신·행동
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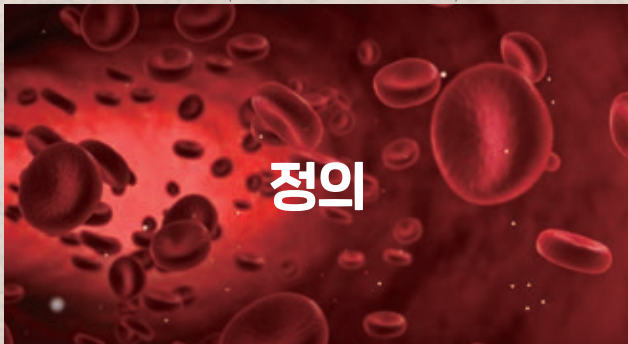
8월
호흡기
결핵

9월
신경계
질환

10월
갑상선
장애

11월
고혈압

12월
만성
신장병



정의

단일 질환 사망률 1위

뇌혈관 질환은 우리나라에서 암 다음으로 꼽히는 사망 원인이다. 수년 동안 단일 질환 사망률과 장애 발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 2019년에 60만 명을 넘어섰다. 연령별로 60~80대 환자가 많지만 40~50대 중년층 발생 비율도 전체 약 20%를 차지한다.

뇌혈관 대표 질환, 뇌졸중

뇌혈관은 뇌동맥과 뇌정맥으로 구성된다. 뇌혈관 질환은 풍부한 혈액을 공급받는 뇌동맥 이상과 관련이 깊다. 뇌졸중이 대표적이다.



원인

기저질환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 기저질환은 위험인자로 작용한다. 뇌혈관 질환은 중년 이상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원인 질환들은 20대부터 진행될 수 있으므로 미리 관리한다. 흡연, 비만, 스트레스 등 잘못된 생활 습관도 방치해선 안 된다.

환경적 요인

뇌혈관 질환은 실내외 온도 차가 큰 겨울철과 10℃ 안팎으로 기온 변화가 심한 환절기에 많이 나타난다. 우리 몸이 기온변화에 미처 적응하지 못한 채 찬 기온에 노출되면, 이완된 혈관이 갑자기 수축되면서 뇌혈관 조절에 문제가 생기기 쉽다.

분류

뇌졸중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 발생하는 '뇌경색'과 혈관 막힘, 고혈압 등으로 뇌혈관이 터져 발생하는 '뇌출혈'로 나뉜다. 발생 즉시 적절한 응급치료를 받아야 한다.

뇌동맥류

뇌혈관이 압력에 못 이겨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환이다. 뇌혈관이 파열돼 뇌출혈로 이어지기 전 한 달 내에 매우 심한 두통을 경험할 수 있으나 대개 전조 증상이 없다.

혈관성 치매

뇌혈관 질환에 의해 뇌 조직이 손상을 입어 발생하는 치매다. 알츠하이머와 달리 초기부터 안면마비, 언어·시야·보행장애, 소변 실금 등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증상

5대 전조 증상

아래 증상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져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않고 반드시 병원을 방문한다.

한쪽 팔다리의 힘 빠짐·언어 표현과 발음 장애·한쪽 시야의 흐릿한 현상·어지럼으로 인한 자세 치우침·극심한 두통

응급환자 진단법 '이웃-손-발'

뇌졸중이 의심될 때 환자 증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진단법이다. 환자의 안면·신체마비, 발음 등을 통해 뇌졸중 증상 여부를 확인한다.

'이' 하고 '웃기' + '손' 들어보기 + '발음' 정확한지 확인하기

대응

골든타임 사수

뇌는 혈액을 통해 지속적으로 산소를 공급받아야 한다. 혈관 이상으로 산소 공급이 막히면 뇌세포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뇌졸중 증상 발생 뒤 3시간 이내, 늦어도 4시간 30분 이내에 적극적인 치료를 받도록 권한다.

'뇌졸중 119' 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즉각 치료 가능한 응급센터를 찾아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뇌졸중 119' 애플리케이션도 유용하다.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치료 가능한 병원, 간이진단, 대처방법 등을 알려준다.

예방

조기 검진

기저질환이나 유전적 요인 또는 증상이 있으면 의사 판단에 따라 아래 방법을 통해 조기 검진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기저질환 관리와 음주·흡연·스트레스·비만 관리다.

뇌CT(컴퓨터 단층촬영) 뇌출혈과 외상에 의한 손상 등을 확인
뇌MRI(자기공명영상) 목표 부위의 집중적이고 세밀한 검사
뇌MRA(자기공명 혈관조영술) 뇌혈관 이상 유무를 자세히 확인

목 운동 & 기지개

어깨와 목 근육은 뇌혈관이 올라가는 통로다. 목을 수시로 좌우·위아래 돌려 스트레칭한다. 크게 전신 기지개를 켜는 것도 도움이 된다. 🌱



탐구영역 [선거]

역사

1. 투표 관련 명언과 해당 인물을 바르게 연결하십시오.

“투표는 총알보다 빠르고 강하다” ●	● 도산 안창호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	● 에이브러햄 링컨
“선거란 누구를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 투표하는 것이다” ●	● 프랭클린 P. 애덤스

- ① ② ③ ④

2. 다음 중 오늘날 선거와 같은 기능을 한 제도가 아닌 것은?

- ① 신라 화백회의
② 고구려 제가회의
③ 백제 정사암회의
④ 조선 삼참의

3. 보기에서 설명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 선거는?

<보기>

미군정 주관으로 집행된 이 선거는 21세 이상 국민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으며 임기 2년의 국회의원 200명을 소선거구제로 선출했다.

-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1960)
②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선거(1948)
③ 제1대 대통령 선거(1948)
④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5)

정책

4. 우리나라 기표용구로 쓰이는 투표 도장의 의미는?



- ① 모음 ‘ㅏ’
② 한자 人(사람 인)
③ 한자 卜(점 복)
④ 의미 없음

5. 우리나라 국회의원 총 의석수를 고르시오.

- ① 200 ② 250 ③ 300 ④ 350

6. 올해부터 달라지는 선거제도가 아닌 것은?

- ① 만 18세(2002.4.16 이전 출생)부터 투표 가능
②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③ 연동형 캡 도입
④ 소선거구제

7. 총선 결과 예시를 통해 A당 국회의원 총 의석수를 고르시오.

<예시>

A당 지역구 당선자 수는 18명이다.

A당 득표비율은 8%(지역구 253석 중 18석의 비율)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총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만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제 적용

- ① 18석 ② 21석
③ 22석 ④ 24석

8.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는? (정답 두 개)

- ① 대통령 선거 ② 국회의원 선거
③ 지방선거 ④ 재보궐선거

정답·해설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사편찬위원회

1.

② ✕

“투표는 총알보다 빠르고 강하다”

↑ 미국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

“선거란 누구를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 투표하는 것이다”

↑ 미국 정치학자 프랭클린 P. 애덤스

2.

④ 조선 상참의

신라 화백회의, 고구려 제가회의, 백제 정사암회의는 국사를 논하고 재상을 선출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제가회의와 정사암회의가 다수결에 따랐다면 화백회의는 만장일치 방식으로 운영됐다. 상참의(常參議)는 고려·조선시대 중요 관료들이 아침마다 편전에서 국왕을 배알하고 정사를 보고한 약식 조회다.

3.

②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선거(5.10 총선거)

보통·평등·비밀·직접 4대 원칙을 지닌 최초의 민주적 선거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출발점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총선)의 시작이다.

4.

③ 한자 卜(점 복)

점괘, 점치다, 헤아리다를 의미하는 한자 卜(점 복)이다. 무효표 방지를 위한 의도도 담겨 있다.

5.

③ 300

우리나라 국회의원 의석수는 총 300석으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다.

6.

④ 소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 투표로 인한 정당득표 결과가 의석수 배분에 100% 적용된다는 뜻이다. 올해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연동 비율을 100% 반영하지 않고 50%만 반영하는 제도다. 큰 정당의 과다 대표성을 줄이고 작은 정당의 대표성을 개선해 유권자 표심을 국회 의석수에 더욱 반영하기 위함이다. ‘연동형 캡(Cap)’은 준연동형에 상한선을 뒀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50%를 적용하는 것이다. 소선거구제는 선거구별 최고득표자 1인만을 선출하는 제도로 1973~1987년(중대선거구제)을 제외하고 유지되고 있다.

7.

③ 22석

A당에 투표

준연동형(도입) 적용

$300\text{석}(\text{국회의원 총 의석수}) \times 8\%(\text{A당 득표비율}) = 24\text{석}$

$24\text{석} - 18\text{석}(\text{A당 지역구 당선자 수}) = 6\text{석}$

$6\text{석} \times 50\% = 3\text{석}$

+

병립형(기존) 적용

$17\text{석}(\text{병립형 비례대표 총 의석수}) \times 8\%(\text{A당 득표비율}) = 1\text{석}$

=

$18(\text{지역구}) + 3(\text{준연동형 비례}) + 1(\text{병립형 비례}) = 22\text{석}$

8.

③ 지방선거 ④ 재보궐선거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뒤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 등록 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에 한해 지방선거권과 재보궐선거권(대통령·국회의원 투표 제외)을 부여한다. 🇸🇰



터벅터벅 소도시

세계 곳곳에 오랜 가치가 살아 있습니다. '본고장'으로 일컬어지는 국외 소도시 여행 정보를 제공합니다.

Travel Information

이동시간

인천~독일 프랑크푸르트
(비행기 약 12시간)

프랑크푸르트~
부에노스아이레스
(비행기 약 14시간)

시차

한국보다 12시간 느림

화폐

페소(1페소 ≈ 한화 20원)

교통수단

버스, 택시



화려한 고독

정열의 춤

[탱고 본고장]
아르헨티나 라 보카

글. 박종호(여행 칼럼니스트)

발길 닿는 곳마다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탱고 여정은 시작된다. 150년 전 이민자들의 향수와 애환이 담긴 춤사위로 시작된 탱고는 오늘날 어엿한 예술 장르로 높이 평가받는다. 그중 탱고 본고장 라 보카(La Boca)에서는 남미의 작열하는 태양과 원색의 화려함으로 물든 탱고 공연이 이어진다.



고된 삶의 애환을 예술로!

장국영과 양조위가 출연한 영화 <해피투게더>, 어릴 적 눈물 삼키며 본 만화 <엄마 찾아 삼만리>, 영화배우이자 아르헨티나 영부인으로 찬란한 삶을 산 에비타, 축구 선수 마라도나와 메시의 공통점은 바로 라 보카다. 탱고 발상지인 라 보카는 부에노스아이레스 48구역 중 동남쪽에 위치한 항구 지역이다.

19세기 말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이민자들이 항구 노동자로 일하던 이 지역은 당시 빈민가나 다름없었다. 항구 인근 집들은 대부분 이민자들이 조선소에서 버려진 자재를 주워서 만들었다. 부두에서 쓰고 남은 페인트로 칠한 덕분에 건물들이 화려한 색을 뽐낸다.

탱고는 지치고 고단한 노동자들 삶에 작은 위안이 됐다. 낮에 일하며 입었던 땀에 젖은 작업복을 벗고 화려한 수트로 갈아입고서 밤거리를 활보하던 이민 노동자들의 애환과 낭만이 탱고를 탄생시켰다.

골목마다 탱고 무대

필수 방문 장소는 예술가들이 꾸민 카미니토 골목이다. 예술가들의 거주지와 주변 시장에 이어 탱고 쇼를 하는 이탈리아인 술집들이 늘어서 있다. 탱고 포즈로 관광객이 사진 찍는 퍼포먼스도 거리 곳곳에 펼쳐진다. 탱고를 소재로 그린 예술가들의 개성 넘치는 미술작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거리 박물관, 카미니토(Caminito)

100~150m 남짓한 이 거리는 스페인어로 '작은 거리'라는 뜻으로 세계 최초의 야외 보행자 박물관이다. 1950년대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이민 온 이탈리아인들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이곳은 예전의 화려한 색상과 흥미로운 건축 양식을 그대로 복원했다.

빨강, 노랑, 파랑, 초록 등 파스텔톤 원색 골목을 무대 삼아 거리의 댄서

들이 연중 탱고 공연을 펼친다. 골목 노천카페에서 맥주를 마시며 탱고 공연을 즐긴다.

138년 역사, 라 페를라(La Perla)

라 보카를 대표하는 레스토랑이다. 1882년 처음 문을 연 이곳은 아르헨티나 역사와 함께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카페 내부로 들어서면 오랜 시간의 흔적들이 묻어나는 사진과 그림 액자, 소품들이 불만하다.

탱고와 함께하는 만찬, 바 수르(Bar Sur)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바로 앞에서 라이브 탱고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반도네온(아코디언과 비슷한 손풍금의 일종)과 바이올린, 피아노 연주와 함께 댄서들의 탱고 공연이 차례로 펼쳐진다. 소규모로 즉석 탱고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매력이다. 입장료 400페소(약 8천 원)에 500페소(약 1만 원) 이상의 술이나 음료를 주문하면 된다. 🍷



시티투어 버스

빨강·파랑 노선이 3시간, 초록 노선이 1시간 소요되는 코스다. 24·48시간·1주일 유효기간 중 선택하면 된다. 24시간 기준 1700페소(약 3만4천 원)로 부에노스아이레스 전 구간을 다닐 수 있다. 투어버스와 탱고 공연을 함께 예약하면 할인된다. 시티투어버스 사무실을 방문해 직접 구입한다.

세계 탱고 축제

2주 가까이 진행되는 축제를 위해 전 세계 탱고인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밀려든다. 댄서들의 거리 공연부터 수백 개의 탱고 강의와 행사 대부분을 무료로 즐긴다. 탱고 월드컵도 함께 개최돼 각국 탱고 챔피언들의 공연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빌딩 숲 너머

서울 종로 부암동 석파정

글·사진. 전부순

무릉도원

인왕산 정기 품은 도심 속 비밀정원

조선왕조 500년 도읍지 서울에는 한 시대를 품어왔던 세도가와 사대 부, 명망가들이 아름다운 한강변과 산기슭에 정자를 짓고 경관을 감상 하며 휴식과 풍류, 강학공간으로 활용했다. 망원정·압구정·낙천정·제 천정·화양정 같은 강변 정자는 물론 인왕산 부근에 별장을 두고 풍류를 즐겼다.

그중 도성 승경지로 손꼽히던 자하문 밖, 인왕산 산기슭 소담한 계곡에는 오래된 소나무와 한옥의 예스런 정취를 고스란히 담은 비경, 석파정(石坡亭)이 자리하고 있다. 마치 시간을 거꾸로 돌려놓은 듯한, 흥선대 원군 별서로 잘 알려진 석파정을 보려면 서울미술관을 통해야 한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서 내리면 격동의 시대에 왕과 왕실, 세도가들이 찾던 비밀정원이 눈앞에 펼쳐진다.

석파정은 누가 언제 본격적으로 원정을 만들었는지 정확하지 않다. 다만 조선 숙종 때 문신 오재 조정만(1656~1739)의 별장 소운암(巢雲庵)이 있던 자리였으나, 철종 때 영의정까지 지낸 김홍근(1796~1870)이 인수해 별서로 삼았다.

입구 왼쪽 계곡 건너 너럭바위 하단 면에 새겨진 ‘소수운림암(巢水雲簾菴)’은 ‘물을 울로 삼고 구름을 발로 삼은 암자’라는 뜻이다. 그 옆에는 ‘한수재 권상하가 벗 정이에게 글을 써준다’는 뜻의 ‘한수옹서증(漢水翁書贈) 우인정이시(友人定而時) 신축세야(辛丑歲也)’라는 글씨가 나란히 있다. 노론의 영수 송시열의 수제자인 권상하가 서울에서 경승지로 손꼽히던 이곳의 빼어난 산수와 아름다운 경관을 ‘소수운림암’이란 다섯 글자로 응축해 석파정의 주인 정이(定而) 조정만에게 기증으로 새겨준 것이다.



오늘날 영·호남에 남아있는 원림과 정자들은 당대 선비들이 자의든 타의든 벼슬살이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 퇴후지(退後之地)로 삼은 것이다. 이는 서울 상류층 정자문화를 지방으로 옮겨간 일종의 모방 행위다. 하지만 정작 서울의 수많은 정자와 별서 등은 궁궐 안과 용케 남은 몇몇을 제외하고는 세월 따라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다. 인왕산 산기슭에 소담히 자리한 석파정(石坡亭)은 서울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무릉도원이다.



신라시대 삼층석탑을 지나면 고즈넉한 오솔길, ‘물을 품은 길’이 나지 막한 능선으로 이어진다. 여기는 제법 지대가 높아 건너편에 자리한 사랑채와 안채, 별채를 조망할 수 있다.

길 끄트머리에 있는 너럭바위는 꼬끼리와 닮아 꼬끼리바위라고도 하는데, 인왕산 특징을 잘 보여주는 수려한 화강암 자연석조물이다. 비범한 생김새와 영험한 기운으로 노부부가 바위 앞에서 득남을 빌어 소원을 이뤘고 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마침내 아들이 시험에 합격해 출세의 길로 들어섰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소원바위 또는 행운바위로도 불린다.

바위 아래 서쪽으로 흘러내리는 깊숙한 계곡에는 중국풍 정자가 살짝 모습을 드러낸다. 조선 사대부들은 중국 동진의 시인 도연명을 흠모했다. 그가 평택현령으로 있을 때 감독관이 순시를 오자 ‘쌀 다섯 말을 위해 향리 소인배에게 허리 굽힐 수 없다’며 벼슬살이를 견어차고 고향으로 돌아와 쓴 글 ‘귀거래사’는 물론이요, 그가 노래한 무릉도원이 이곳 별천지와 겹쳐진다. 뒤쪽 너럭바위에서 흘러내린 계류 한가운데에 기둥을 세워 평대를 쌓아 절선형 다리를 놓은 파격적인 건물이라 1974년 서울유형문화재 제26호로 지정됐다. 김홍근이 청나라 장인을 불러 조영했다지만 기록이 없어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청나라 풍의 문살문양과 평석교(平石橋) 형태를 통해 건축 당시 이국 취향의 독특한 모습이라 유추할 뿐이다. 정자 내부도 마루나 방이 없고 난간만 둘렀다. 바닥은 나무로 마감하는 한국 전통과 달리 화강암을 깔았으며 사

모지붕도 기와 대신 동판을 덮어 조선 말기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시대적 분위기가 물씬 풍겨난다.

홍선대원군도 탐한 서울 제일의 명원

구름길로 들어서 담에 그려진 벽화를 통해 이중섭과 윤보를 만난 뒤 별채로 들어선다. 석파정은 본래 8채 건물로 구성됐으나 지금은 안채와 사랑채, 별채 그리고 정자 유수성종관풍루만 남아 있다. 그 중 별채는 석파정의 중심 공간으로 주인이 머물며 손님을 맞이한다. 바깥조망이 탁월하고 자연스럽게 외부와 차단돼 고종황제가 하룻밤 묵어가기도 했다.

본래 석파정은 조선 후기 문신인 김홍근의 별서였다. 홍선대원군이 팔기를 청했으나 김홍근이 거절하자 홍선대원군은 “하루만 놀게 빌려 달라”고 꾀를 냈다. 이에 김홍근은 마지못해 허락했다. 결국 홍선대원군은 고종 임금에게 행차를 권해 이곳을 방문했고 그 뒤 김홍근은 다시 삼계동에 가지 않았다. 임금 발길이 머문 곳은 신하된 도리로 감히 거처하지 못해서였다. 결국 이곳은 마침내 윤현궁 소유가 됐다.

홍선대원군이 탐이나 빼앗을 만큼 김홍근 정원은 서울 제일의 명원이었다. 별채 아래는 화강석 기단 위에 잣나무로 지은 안채다. 그 사이 공



TRAVEL INFORMATION

석파정

주소

서울시 종로구
창의문로 11길 4-1

* 석파정 서울미술관 통해 입장 가능

가는 방법

자가용 이용 시:

3호선 경복궁역에서 세검정
삼거리(상명대학교) 방향,
자하문 터널 입구 왼쪽

대중교통 이용 시:

5호선 광화문역이나 경복궁역
하차 뒤 지선 버스 승차

*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3



4



5



간은 장대석으로 쌓아 나무를 심어 한층 품격을 높인 화계를 조성했다. 흥선대원군이 인수한 뒤 왕실에서 조영한 축조법을 이곳에 적용한 듯하다. 김홍근의 서화 수장고이자 지인들과 더불어 고서화를 보는 공간 사랑채(玄對樓) 옆에 있던 별당은 서예가 소전 손재형이 1958년 세검정 삼거리 부근 뒤뜰 바위 언덕으로 옮겨 지금은 한정식집(석파랑) 부속 건물로 쓰인다. 우리 전통과 중국 건축기법이 혼용돼 대청과 양옆에 방이 있고, 앞뒤로 툇마루를 둔 단순한 구조의 아담한 건물이다. 특히 우리 건축에선 볼 수 없는 서쪽 벽 둥근 만월창(滿月窓)과 북쪽 벽 반월창(半月窓)이 인상적이다. 이 건물이 석파정에 있을 때는 흥선대원군이 큰방을 쓰고 손님에게 건넌방을 내어줬으며, 대청은 자신이 난초 칠 때 이용했던단다.

사랑채 서쪽 뒤편 바위에 '삼계동(三溪洞)'이라 쓴 각자가 있어 이곳은 한때 '삼계동정사(三溪洞精舍)'로도 불렸다. 그러나 흥선대원군이 소유한 뒤부터 석파정이 됐

다. 앞산이 모두 바위(石 석) 언덕(坡 파)이었기에 대원군은 이를 따 자신의 호로 썼다. 사랑채 왼쪽에 너른 그늘을 드리운 650년 된 소나무는 서울시지정보호수 60호로 천세를 바라는 마음에서 '천세송'이라 부른다. 현재 석파정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6호이며, 이 건된 사랑채(대원군 별장)는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돼 있다. 🌿

- 1 송시열의 수제자 권상하가 쓴 너럭바위 위 소수운림암(巢水雲簾菴) 글씨
- 2 석파정 중심 공간 별채는 조망이 탁월하고 자연스럽게 외부와 차단돼 고종황제가 하룻밤 묵고 갔다
- 3 석파정 내에는 '물을 품은 길'과 '구름길'로 이름 지은 오솔길이 연결돼 있다
- 4 서울시 지정보호수 60호로 지정된 650년 된 소나무 '천세송'
- 5 사랑채 서쪽 뒤편 바위에 삼계동(三溪洞)이란 각자가 새겨져 있어 삼계동정사(三溪洞精舍)로도 불렸다



두런두런 이야기방

평범한 일상 가운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사우의 사연을 실습니다.



한가족 한마음으로

사우 가족 편지

글. 조보영(안전대응팀 박동희 사우 부인)



‘코로나19’라는 생경한 이름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온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남녀노소 어느 한 사람 예외가 없고, 외출조차 자유롭지 못한 요즘입니다. 벌써 밝은 봄기운이 만연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한겨울 같기만 합니다.

이렇듯 웃을 일 없이 지내던 어느 날 아침, 세안하던 중 뜬금없이 에쓰-오일 캐릭터 도일이가 떠올랐습니다. 봄을 닮은 노란 개나리색 때문일까요. 도일이가 제 곁에서 “힘내라!”고 외치는 듯했습니다.

일흔이 넘으신 친정어머니도 평소 도일이가 팬입니다. 무뚝뚝한 성격이신데도 “도일이를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미소가 나온다”며 인형을 TV 옆에 두고 연신 바라보십니다. 어머니의 늣둥이 손주이자 제 조카인 24개월 아가도 그 사랑을 배웠나 봅니다. 노란 도일이를 껴안고 좋아라 합니다.

부모님 찾아뵙기도 여의치 않는 상황이라 우리 가족은 이렇게 사진과 편지로 안부를 전합니다. 어머니가 직접 촬영한 휴대폰 사진도 곁들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힘내라!” 외치고 있을 도일이의 에너지를 가득 받아 지금의 어려움을 거뜬히 이겨나가길 기원합니다. 서로를 향한 응원이 어느 때보다 귀하게 여겨지는 이때, 간절함과 소망을 담아 에쓰-오일 가족 모두를 응원합니다. 🌻



즐거운 인생 공식

도서 <행복을 풀다> 독후감

글: 심규역(총무보안팀)

구글X의 신규사업개발총책임자 모 가뎃(Mo Gawdat)은 아들을 의료 사고로 잃었다. 공학자 관점에서 행복 방정식을 찾아낸 그에게 아들의 죽음은 자신이 도출한 알고리즘을 검증할 시험대였다. 결국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그와 가족이 만난 깨달음은 '우리는 애초부터 행복하게 살도록 설계돼 있다'는 것이다. 행복 방정식은 검증된 셈이다.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더 쉽게 기억한다. 이것은 성향인 듯도 하다. 이런 성향이라 판단되는 사람을 더 존중하는 경향마저 있다. 이 모든 것은 뇌 설계에서 비롯된다. 부정성 편향이다. 과학자들은 편도체의 반응

에서 증거를 찾는다. 편도체는 측두엽 내측에 있는 신경핵의 집합체로 동기와 기억, 주의 학습, 감정 등 관련 정보를 처리한다. 그런데 편도체가 부정적 경험을 탐색할 때 뉴런 중 약 3분의2를 쓴다. 우리 뇌가 나쁜 소식을 찾을 때도 부정성 편향이 두드러진다. 부정적인 경험은 즉시 장기 기억에 저장되는 반면 긍정적인 경험은 12초 이상 우리 의식을 떠돈다. 좋은 기억은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는 데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다.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뇌를 신경과학자들은 진화의 결과로 본다. 먼 옛날 조상들은 생사의 문제가 걸린 위험한 상황에서 오래 생존할 수 있는 방향의 결정이 필요했다. 자연히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들에 주목해 회피 방법을 구했다. 생존을 최우선시해 살아남고자 애쓰는 흔적이 진화의 결과로서 오늘날 우리의 뇌에 분명히 남은 것이다.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요즘 집과 일터를 다람쥐처럼 뱅뱅 돌며 이 책을 택했다. 쉬이 물리칠 수 없는 질병 앞에서 많은 사람이 일상의 행복을 그리워한다. 책은 단답형이 아니었다. 쪼개고 분해한 행복의 구성단위를 헤아리고 그가 제시하는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길 권한다. 핵심은 '행복 모드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자식을 가슴에 묻고 얻은 통찰은 강력한 설득의 힘을 갖는다. 🌱





한 뼨 성장 더해

커지는 성공 발자취



HR Renovation 순항

글. 양혜린(HR기획팀)

균형적 성과 관리 시스템

우리회사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자 조직의 중추인 인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지원·개발하기 위해 인사 혁신(HR Renovation)을 추진하는 가운데 신규 인사 프로그램(New HR Program)을 도입했다. 이는 2017년부터 최근 3년 동안 인사 플랫폼 개선과 인력개발 향상 작업에 이어 업무 효율성 개선 및 일과 삶의 균형(WLB)을 도모하는 세부 시책으로 순항해 왔다.

임직원 모니터링과 피드백으로 실행력 강화 장치를 거친 프로그램은 지난 2월 성과 지향

적 조직문화 강화에 집중한 클라우드 기반의 신규 인사 시스템(New e-HR system) 구축 완료에 따라 제도 안정화의 청신호를 밝히고 있다. 앞서 2018년 1단계 시책으로 직무체계 개선과 직무관리 체계화를 비롯한 경력개발 제도 개편, TRS(Talent Review Session) 도입으로 직무에 기반한 인사제도를 시행한 데 이어 직원들은 올 3월 개인별 목표를 수립하고 연중 상시 성과관리에 착수했다.

기업은 밀레니얼 세대의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는

계획들을 전략에 담아내고

그 최대 관심사를 인정함으로써

충성도를 고무시킬 수 있다.

<딜로이트 밀레니얼 서베이 2019>



세대 조화를 위한 맞춤 전략

우리회사는 비전2025와 도전적인 전략목표 아래 인적자원이 무한대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힘써왔다. 특히 회사의 성장을 견인해온 기존 인력과 새로 합류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실마리 찾기에 집중했다. 밀레니얼 세대는 한층 세분화한 프로젝트 마일스톤을 수행하는 가운데 각 목표 달성에 따른 발 빠른 피드백과 성과 인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각도의 통찰을 거쳐 구축한 새 평가 시스템은 연중 상시 성과관리로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개선된 제도에 기반해 직원 스스로 주도적인 업적목표와 역량목표, 경력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직원 각자가 연중 상시로 목표를 설정하고 피드백과 리뷰를 통해 자신의 성과를 관리할 수 있다. 아울러 새 인사 시스템인 HCM(Human Capital Management) 클라우드를 통해 상시적인 성과관리가 정교하게 수행되면서 해당 기록이 활용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새 제도는 모두의 공감을 기초로 안착하며, 주체적인 활용에 따라 성과를 달리한다. 공정한 보상과 성장, 학습 그리고 경력 개발의 폭넓은 기회들이 제공되는 가운데 저마다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문화 확립에 뜻을 모을 시점이다. 🌟

밀레니얼 세대는 부모의 지원과 칭찬 등을 받으며 성장했다.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기회는 일을 통한 성장이다.

직무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고, 보고체계가 간결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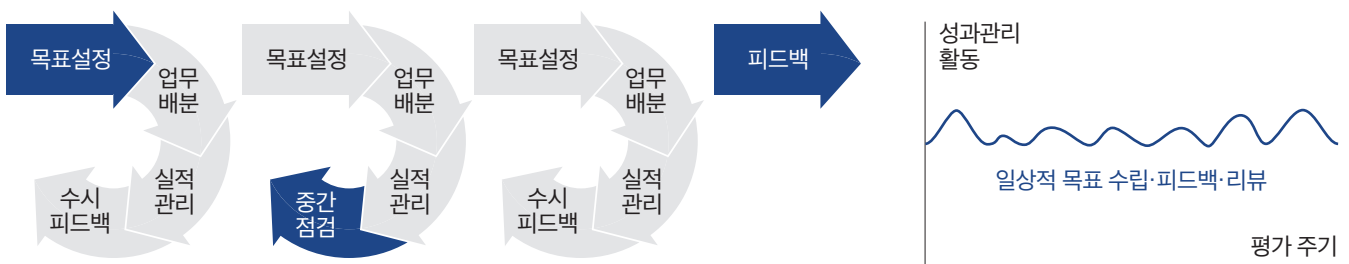
피드백은 충실하고, 일하는 방식이 상호의존적이어서

협업이 잘 되는 등 요건은 필수적이다.

<밀레니얼과 함께 일하는 법> 이은형 지음, 2019



목표 설정·Feedback & Review





직영 염리동주유소 개소

글. 황태건(직영네트워크관리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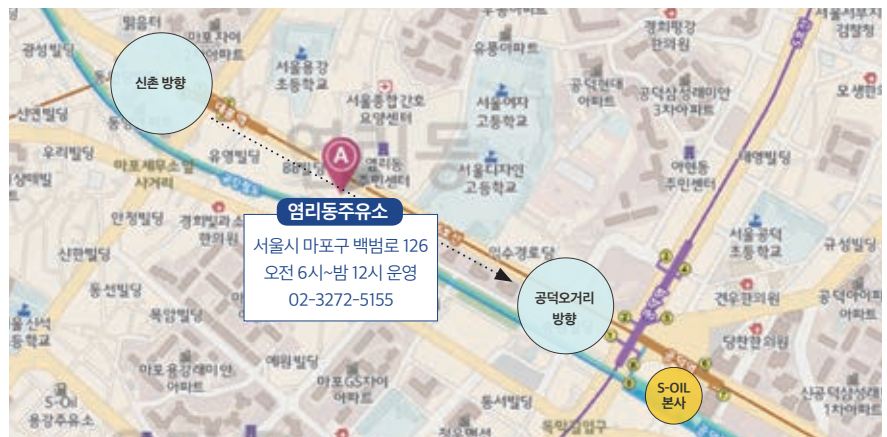
3월 23일 우리회사 직영 주유소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 들어섰다. 본사 사옥이 위치한 마포에 동지를 틈 염리동주유소다.

염리동주유소는 신촌에서 공덕오거리 방면 왕복 6차선 대로변 350여 평 부지로 고객을 맞이한다. 마포 유일의 셀프 주유소로서 터널식 마그마 버블 세차기를 갖춰 도심에 오가는 출퇴근 인구는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자가 차량 관리 수요에도 부합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우리회사는 예측 불가능한 시장상황과 경영 환경 속에 지속적이고 일관된 판매망 확대 정

책을 통해 국내 영업 시장 공략을 펼쳐왔다. 이 가운데 염리동주유소는 국내 영업 전략에 따른 시책들을 발 빠르게 적용해 고객 요구에 명민하게 반응하면서 새 SI(Service Station Identity)로 향상된 이미지를 갖춰 고객 마음에 우리 주유소를 각인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도심 한복판 반가운 이웃



NEWS

제45기 정기 주주총회

우리회사 제45기 정기 주주총회가 3월 26일 본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사회 결의에 따라 김철수 이사 주재로 진행된 이날 주총은 감사보고, 영업보고에 이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승인 등 상정 의안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재무제표 승인 건에서는 지난해 총 매출 24조3천939억원, 영업이익 4천200억원, 당기순이익 626억원과 배당금 등을 반영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확정했다.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와 원유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미래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우리회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성장을 향한 변함없는 의지를 천명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성장동력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속적인 혁신과 개선으로 경영 전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그 일환으로 전사적인 디지털화(Digital Transformation)를 본격 추진해 생산성을 제고할 계획임을 알렸다.

우리회사는 임직원의 의지를 한데 모으고 역량과 자원을 결집해 위기 돌파에 나서고 있다. 이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에너지·화학기업으로 변모하기 위한 2단계 석유화학 확장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투명한 지배 구조와 환경·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가운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굳건하게 다져나갈 계획이다.



상처 보듬는

따뜻한 소통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우리회사가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돕기 위한 후원금 5천만 원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전달했다.

선진영 전무는 3월 11일 허오영숙 센터장과 만나 지원금을 전하면서 “다문화 가정의 사각 지대에서 가정폭력 피해로 고통 받는 이주여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예쓰-오일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회사는 2013년부터 민간 기업 최초로 이주여성 대상 후원을 시작했다. 이주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열악했던 당시부터 현재까지 4억5천만 원을 기부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을 위해 상담·교육·심리치료 활동

을 전개하는 비영리민간단체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자녀가 머무는 보호시설(쉼터)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회사가 기부한 후원금은 센터를 통해 이주여성 지원에 쓰인다. 쉼터를 퇴소하고 자립하는 이주여성 대상 생필품 지원이나 이주여성 출신 통번역 전문상담 활동가의 이주여성 법률상담, 사회복귀 지원 활동 등에 활용된다.



이주여성 지원 사례

남편 폭력으로
쉼터에 입소한 뒤
양육권 변경소송 진행.
자녀와 쉼터 퇴소 뒤
자립물품 지원
린00(베트남·자녀1)

남편과 사별한 뒤
두 아이 양육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수혜자에게 필요한
물품 지원
강00(베트남·자녀2)

남편과 시모의 폭언과
아이들을 향한 학대로
쉼터 입소.
자녀와 같이 살도록
월세 지원
나00(베트남·자녀2)

경제활동이 불성실한
남편의 의처증과
폭언에 시달림.
아이와 자립하도록
물품·월세 지원
레000(캄보디아·자녀2)

알코올중독인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생계 위한 자립 지원
안00(중국·자녀2)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해
홀로 생활하던 중
남편 학대로 우울증이 생긴
아들이 찾아옴.
모자의 자립 물품 지원
김00(몽골·자녀1)

오랜 투병 뒤
사망한 남편의
병원금으로 인해
밀린 1년간 월세 지원
김00(베트남·자녀0)

남편의 도박중독과
폭력으로 이혼한 뒤
홀로 자녀 양육.
경제활동 위한
자립 물품 지원
장00(베트남·자녀2)

임신 뒤
남편의 폭력과 폭언이
지속돼 쉼터 입소.
이혼 뒤 월세 방을 얻어
자립하도록 지원
람00(베트남·자녀1)

남편의
불성실한 경제활동과
폭력으로 쉼터 입소.
퇴소 뒤 자녀와 자립 위한
월세 지원
누엔000(중국·자녀1)

출산 뒤
지속적인 남편과 시모의
폭력으로 쉼터 입소.
이혼 뒤 고정수입이 없어
월세 지원
이00(중국·자녀1)

남편의 폭력과 협박
가게 빚으로 쉼터 입소.
자녀와 심리치료와
자립 물품 지원
김00(베트남·자녀1)

“진솔한 후원 바르게 전하겠습니다!”

고통 받는 이주여성을
도울 수 있어 기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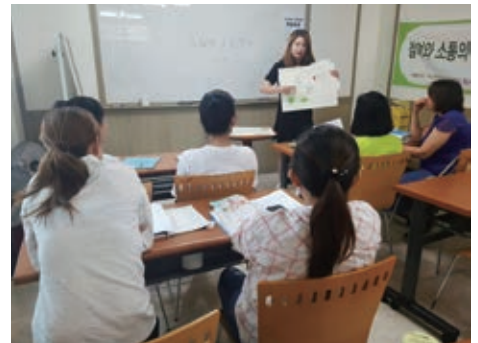
이현지(경남지부 통번역 활동가)

베트남 이름은 동티쉬엔입니다.
국적 취득 뒤 한글 이름으로
개명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 7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통번역 활동을 통해
고통을 겪고 있는 이주여성들을 도울
수 있어 기쁩니다. 에쓰-오일 후원으로
올해에는 대학 사회복지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매일
성장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질적 지원과
희망을 전해요

쭝리(부산지부 통번역 활동가)

에쓰-오일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이주여성 지원 활동을 3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위기에 처한 많은
이주여성들에게 실질적 지원과 함께
희망을 줄 수 있었습니다. 에쓰-오일의
정성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햇살나눔

세상의 온기를 더하는 햇살나눔 활동을 소개합니다.

따로 또 같이 희망 하모니

코로나19 극복 기원 릴레이 연주 캠페인

글: 신영철(CSR/운영지원팀)

우리회사가 2009년부터 후원해오고 있는 하트하트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희망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악기를 높이 들었다.

3월 18일 착수한 <힘내자, 대한민국! 플레이 하트> 캠페인은 오보이스트 이준범 단원을 비롯해 플루티스트 김동균, 첼리스트 조경익 등이 순차로 릴레이 연주를 엮어가며 확산 일로를 걷고 있다.

이 캠페인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연주자가 다음 참여자를 지목해 릴레이 연주를 잇는다. 응원 메시지와 연주 영상을 촬영한 뒤 해시태그(#PLAY하트)를 붙여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업로드하고 다음 연주자를 지목하면 된다.

2006년 하트하트재단이 창단한 하트하트오케스트라는 국내 최초의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다. 우리회사는 2009년부터 하트하트오케스트라를 후원해 오면서 음악적 재능이 있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재할 의지를 높이고 시민들이 장애인에 대해 가진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힘을 보태고 있다.

하트하트오케스트라는 지난 13년 동안 연주 활동과 함께 총 232개의 초·중·고교 9만여 명 학생들에게 장애 이해 교육을 펼쳐왔다. 아울러 본사 사옥에서 후원금 전달식을 겸한 열한 차례 공연과 총 14회의 시민 대상 무료 연주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와 비장애 간 잘못된 인식의 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해왔다.

단원들은 사회 곳곳의 후원으로 세계를 누비며 큰 감동을 전하고 있다. 예술의전당을 넘어 뉴욕 카네기홀, 워싱턴 케네디센터, 캐나다 밴쿠버, 일본 등 무대에서 연주했다. 그중 10여 년 이상 꾸준한 연주로 음악대학에 입학하거나 졸업 뒤 연주 활동에 참여하는 연주자도 다수 포함돼 있다.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내국인 연주 릴레이 캠페인

힘내자, 대한민국!

Play 하트

"코로나로 조금씩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위해 힘내라고 말해보고 싶어요!"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발달장애 청년들이 마음을 모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릴레이 연주 캠페인
《힘내자, 대한민국! PLAY 하트》를 시작합니다.

발달장애 연주자들의 연주가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힘과 위로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오보이스트 이준범
플루티스트 김동균
첼리스트 조경익
바이올리니스트 송유환
클라리넷리스트 김동균
바이올리니스트 송유환
바이올리니스트 조경익
바이올리니스트 송유환
바이올리니스트 송유환
바이올리니스트 송유환
바이올리니스트 송유환

본 캠페인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캠페인에 참여한 연주자가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여 릴레이 연주를 이어갑니다.

발달장애 연주자들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 캠페인
《힘내자, 대한민국! PLAY 하트》에 많은 분들이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S-OIL과 함께합니다.

참여방법

1. 응원 메시지와 연주 영상을 촬영합니다.
2. #PLAY하트를 해시태그 한 뒤, 개인 SNS에 업로드합니다.
3. 다음 참여자에게 내용을 전하며 참여를 요청합니다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유튜브

하트-하트재단



모바일기기로
QR코드를 찍으면
하트하트오케스트라 단원들의
릴레이 연주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힘내자, 대한민국! 플레이 하트>
www.heart-heart.org/campaign/detail/8405



함께 극복해요! 코로나19

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외교부



생활 속 대응지침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 수칙

- ▶ 흐르는 물에 최소 30초 동안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기
- ▶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기
- ▶ 사람 많은 곳 방문을 자제하고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 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 ▶ 직원 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접촉 자제
- ▶ 사업장 종사자의 좌석 간격(1m 이상 유지) 확대
- ▶ 출퇴근·점심 시간 교차 실시, 일정 거리 두고 식사
- ▶ 실내 휴게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 이용 공간 일시 폐쇄
- ▶ 집단 행사, 소규모 모임, 출장 등 연기 또는 취소



국외 출입국 대응지침

입국 뒤! 반드시 지켜주세요

4월 1일(수)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의무

- ▶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2주간 반드시 자가격리
- ▶ 정부가 만든 '자가격리 안전보호앱' 공항에서 설치
- ▶ 유증상자는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받기
- ▶ 무증상자의 경우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본인 거주지에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시설에서 격리 생활
(격리시설 이용에 드는 하루 10만 원 안팎의 비용은 본인 부담)

출국 전! 꼭 확인하세요

3월 23일(월)~4월 22일(수)

특별여행주의보

- ▶ 외교부가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국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이 기간 동안은 국외여행 취소·연기 권고
- ▶ 불가피하게 출국할 경우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는 국가(지역) 정보를 외교부 홈페이지(www.0404.go.kr)에서 반드시 확인

입국자 교통 이용 방안

- ▶ 승용차를 권장하며, 국외 입국자만 탑승하는 공항버스 또는 KTX 전용칸 이용
(공항철도 이용 제한)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 ▶ 기존 300만 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4월 5일부터 시행)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

- ▶ 한·중·영어, 베트남어, 타이어, 일본어, 몽골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말레이어, 독일어, 스페인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필리핀어, 아랍어, 싱할라어 지원

여행 정보 발령

현황

● 특별여행주의보

● 여행금지 서남아시아(아프가니스탄), 동남아시아(필리핀)
중동(리비아·시리아·예멘·이라크), 아프리카(소말리아)



APRIL
2020

【 보직변경 】

3.11

이원용(주임.품질관리팀)→정유1팀
이종필(계장.품질관리팀)→동력팀
최병호(계장.품질관리팀)→Hydrocracker팀
류희열(계장.품질관리팀)→MHC팀
전효철(주임.품질관리팀)→Alkylation1팀
신길재(계장.품질관리팀)→탈황3팀
이정관(계장.품질관리팀)→Alkylation2팀
조남규(계장.품질관리팀)→올레핀송유/동력팀
이주현(계장.품질관리팀)→제품운영2팀
권영호·오길호(계장.품질관리팀)→제품운영3팀
최재천(계장.품질관리팀 Safety Foreman)→화학생산본부(Safety Group Safety Foreman)
황두현(계장.품질관리팀)→전기팀
이정환(계장.품질관리팀)→투자공사팀
황승안(계장.품질관리팀)→검사진단팀
조대철·이종국·김은중·전득환·김판호(계장.품질관리팀)→환경관리팀

3.30

권영부(계장.정유1팀 교대과장)→정유1팀
김인규(계장.정유1팀)→정유1팀 교대과장
손성도(계장.아로마틱1팀 교대과장)→아로마틱1팀
이상무(계장.아로마틱1팀)→아로마틱1팀 교대과장
정만식(계장.Alkylation1팀)→Alkylation1팀 주간과장
임광재(계장.탈황3팀 교대과장)→탈황3팀 주간과장
황영태(계장.탈황3팀)→탈황3팀 교대과장
이성진(주임.제품운영2팀)→제품운영3팀

6.1

정지환(주임.Akylation2팀)→정비계획팀
강명제(운전원.정비계획팀)→정유2팀

【 정년퇴직 】

3.31

김석배(2급.전주지사)

【 생산직 신입사원 부서배치 】

3.30

김성완·배한복→RFCC2팀
박건도·장연규·한인우→탈황3팀
류제욱·박다환·강필직·정현섭→Alkylation2팀
이진환→아로마틱1팀
김현수→PX2팀
김태영·신기범·이영봉→PO/MTBE팀
차동엽·허주영·이동재→올레핀송유/동력팀
김재민·조성진·김근효→PP팀
최원석→검사진단팀

【 결혼 】

4.5

김신형(자금계획팀)

4.11

김찬(투자공사팀) 딸
최재철(환경팀) 딸

4.18

김양규(아산지사) 딸



NOTICE

사보 <S-OIL>에 정다운 추억을 남기세요

임직원 사연을 에세이로 기록해 드립니다.
편집실에 글과 사진을 보내시면
어엿한 콘텐츠로 게재됩니다.
글은 분야와 형식에 제한이 없습니다.
격의 없이 대강 작성한 글도 충실한
윤문을 거칩니다.
송부하신 글과 사진이 실제 지면에 실리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주제

#나홀로 또는 가족 여행기
#자녀 또는 부모님 등 가족의 편지
#각종 체험기·관람기
#동기 또는 선후배 모임 후기
#동호회 활동기
#부서 또는 개인 업무 관련 사연
#소소한 개인 일상 또는 단상 소개 등

글

워드문서 기본설정 기준 약 0.5~1면

사진

사진 4장 이상 원본파일 필수 제출

기한

연중 상시 모집

송고

sabo@s-oil.com

【 부음 】

3.10

유정우(인천저유소) 빙모

3.13

송경현(제품운영2팀) 부친

3.14

이정섭(MHC팀) 외조부
김지훈(전기팀) 모친

3.15

이종명(제품운영2팀) 빙모

3.16

박민수(강북지사) 빙모

3.17

김수현(남양주지사) 외조모

3.22

노종석(수급전략팀) 외조부

3.24

장영민(중부영업지원팀) 모친

3.27

이성철(계기1팀) 모친
박춘택(정비계획팀) 부친

3.28

유진열(대외업무팀) 부친

3.30

김재규(제품운영2팀) 빙부
이규현(고분자제품개발팀) 조모
강영진(인천저유소) 외조모

4.1

정인재(법인영업팀) 부친



독자마당

사내보 <S-OIL>은 사우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지면에 참여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문의: sabo@s-oil.com



<고전 속 핵심가치> 최고 - 선즉제인(先則制人)
요즘 시대에 깊이 새겨볼 성어라고 생각합니다.
김육현(탈항1팀)



<표창자 인터뷰> 나눔 - 피준호 사우(탈항1팀)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꾸준히 활동하는 모습을
높이 평가합니다.
김승현(제품운영3팀)



<언제나 건강> 당뇨병
전염병이 극성인 요즘 기저질환에 관한 설명을
유심히 봤습니다.
정재웅(직영주유소.전북 군산시 옥산로)

이달의 퀴즈

Quiz 01. 생활안전 아이콘

‘사회적 거리두기’의 올바른 실천은?



Quiz 02. 즐거운 두뇌 훈련

다음 <보기>와 같이 단어 앞에 공통으로 들어갈 글자는?

<보기>				
결	꾸다	나라	→	“꿈” 꿈결, 꿈꾸다, 꿈나라...

1	마늘 나무 닭	→	?
2	사랑 숫다 밀다	→	?
3	이불 겹 바지	→	?
4	소매 낮 머느리	→	?
5	갈리다 박자 나가다	→	?
6	불이다 니 버선	→	?

*자료 삼성서울병원 뇌 신경센터 ‘뇌 훈련 퀴즈’



<이달의 활력평가> 위생
가족과 함께 퀴즈를 풀면서 의외로 모르는
항목이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양민준(네트워크개발팀 양상훈 사우 가족)



<두런두런 이야기방> 산악회 정기산행기
사내 동호회원들이 단합해 산행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김은진(RFCC2공정팀)



<팝업 정보창> 함께 극복해요! 코로나19
현재 가장 필요한 정보를 다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최해성(아산주유소.부산시 사상구 새벽로)

지난호 퀴즈 정답 · 당첨자

Quiz 01.

생활안전 아이콘

감염 막는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은?

→ 정답.

벗을 때



①

* 마스크 겉면에 손이 닿지
않도록 끈을 잡고 착용하거나
벗는다. 마스크를 폐기할 때도
겉면은 만지지 않고 뒷개가
있는 휴지통에 버린다. 겉면에
손이 닿았을 때는 세정제로
꼼꼼히 씻는다.

*자료 질병관리본부

Quiz 02.

즐거운 두뇌 훈련

구	야	자	모
선	인	모	면
처	소	비	바지
면	지	의	소인
		름	소면
			야비

*최소 16개 이상

공	장	동	전	장수	장어
하	방	의	냉	장전	전공
고	어	대	전동	전어	전수
청	수		전의	청어	냉동
			청동		
			냉대		

*최소 16개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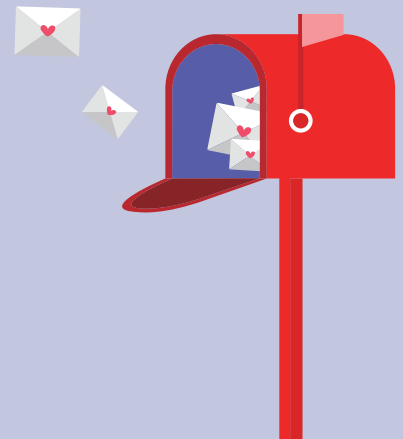
단어를 최대한 많이 생성할수록 인지기능을
관장하는 전두엽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김민석(PP팀)
김종현(기계2팀)
하창원(기계2팀)
이승상(LPG팀)

휴대폰 보조배터리

신용준(기계2팀)
김상국(동력팀)
김종필(정유3팀)
김건영(정유해외마케팅팀)



올해 사보 표지는 핵심가치를 통찰해 볼 수 있는
동화 이야기를 소재로 그려나갑니다.

